

2024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집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

2024. 4

금융인 특특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발간사

2017년은 국내 투자시장에서 매우 기억에 남는 한 해였습니다. 전통적인 주식시장에서 벗어나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투자 광풍이 불었고, 가상자산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도 관심도 없던 사람들까지 투자에 참여하면서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프리미엄(‘김치 프리미엄’)이 30% 이상 기록되는 등 엄청난 투자 수요가 생겼고, 이러한 열풍에 맞춰 수많은 가상자산거래소 역시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당시에는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이라는 게 실용성이 있는 것인지, 투자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존재하는 것인지 논의도 많았고 심지어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투기 과열의 대표적 사례인 튜립버블에 비유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각자 의견은 달랐으나, 가상자산 시장은 2024년 현재까지 상승·하락을 반복하면서 성장하였고 지금도 전세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현재 비트코인은 위험자산 시총 순위 9위를 기록하며 그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에는 비트코인 ETF까지 승인되면서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장해가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단지 시세 상승이나 하락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탐욕이라는 감정을 노리는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가 하루가 멀게 계속 생겨났던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책무가 있는 우리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에 도움을 주고자 2023년 6월 1일자로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출범하였고, 2024년 4월 9일 현재까지 누적 2,20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본 책자는 그동안 접수된 신고 건을 전수로 분석하여 대표적 피해 사례 7건을 선정하였고, 피해를 입게 된 경위까지 최대한 상세히 기재함으로써 일반 투자자가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유형의 사기가 횡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각 사례마다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한 ‘투자자 입장에서의 대응요령’을 별도로 기재하여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도모하였습니다.

본 책자를 통해 많은 이들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더 나아가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지속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책자가 나오기까지 수고해 준 가상자산조사국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2024년 4월

금융감독원

전략·감독담당 부원장보

김 병 칠



추천사

2024년 7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전통 금융권과 접점을 넓히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상자산 이용자의 심리를 악용한 투자사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투자사기는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거래 질서를 어지럽게 만들면서 가상자산 생태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가상자산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두터운 이용자 보호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과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공동 발간한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은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사례집은 어렵고 복잡한 설명보다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7가지 투자사기 사례들을 선보이며, 가상자산 이용자가 명심해야 할 내용 등을 쉽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이용자뿐 아니라 가상자산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국민들께도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DAXA는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집 발간 과정에도 참여하여,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 대상으로 강의, 콘텐츠 제작 등 여러 교육 활동을 지속해 건강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례를 엄선하고 국민들께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필에 힘써주신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DAXA 또한 가상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의장 이 석 우

CONTENTS



■ 머리말 8

01 비트코인의 태동 13

PART

02 가상자산 시장의 격변기 19

PART

03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7선

PART

27

- 1.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사기 30
- 2. 락업코인 판매(블록딜) 사기 34
- 3. 로맨스 스캠 사기 42
- 4. 유명 코인 사칭 사기 48
- 5. 가상자산거래소 직원 등 사칭 사기 54
- 6. 가상자산 리딩방, 대리매매 사기 62
- 7. NFT 경매 사기 68

■ 맺음말

74

머리말

2022년 5월경 해외 대형 가상자산거래소는 물론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대부분에 상장된 국산 “루나(LUNA) 코인”이 2020년 9월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다 갑자기 폭락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2022년 4월 초 최고 \$119.18(16만원 상당)을 기록한 뒤 다소 하락세를 이어오다 5월 10일경 급락하기 시작하여 5월 15일까지 \$0.00001675(0.02원 상당, $\Delta 99.9999\%$)로 하락한 것이었습니다.



▶ 루나차트(출처: Coinmarketcap)

본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테라폼랩스(대표 권도형)는 미국 달러 가치와 1:1 가격으로 유지(Pegging)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이하 'UST')를 발행하였고, 루나(LUNA) 코인의 공급량 조절을 통해 UST 가격이 1달러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알고리즘을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며칠 전 디페깅(De-pegging, UST 가격이 달러 가치 아래로 하락) 현상이 발생했고, 이는 시장참여자 사이에서 루나 코인 알고리즘 방식에 대한 의문과 불안감을 확산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지속적인 디페깅과 투매로 이어졌고, 가격 방어를 위한 테라폼랩스의 자금 수혈에도 불구하고 루나 코인의 가격 하락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태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었고, 루나 코인과 무관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현재 권도형은 증권사기 및 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몬테네그로 대법원 판단에 따라 미국으로의 송환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금융시장에서 신뢰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작용합니다. 투자처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면 신규 투자자(공급자)가 증가하고, 투자받고자 하는 기업 등(수요자)은 보다 양질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 가능해져,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지속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¹⁾에 접수된 2,209건의 신고 중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가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에 만연한 이러한 사기행위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여,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책자는 후술할 내용을 통해 사기 사례를 널리 전파하여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집필되었습니다.

제1편 ‘비트코인의 태동’에서는 가상자산을 처음 접하는 투자자를 위해 비트코인의 탄생 스토리 등을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제2편 ‘가상자산 시장의 격변기’에서는 비트코인 차트로 보는 15년의 역사와 주요한 이슈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연대기를 간략히 기술하였습니다.

제3편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7선’에서는 2023년 6월 1일부터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요령을 “실제 사례 그대로 최대한 상세히” 기재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유형이나 새로운 유형의 사기에도 투자자들이 현명하게 대처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1) 2023년 6월 1일자로 출범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2024년 1월 30일자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

2024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집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



PART 1

제1편 비트코인의 태동



비트코인의 태동



비트코인의 탄생

2008년 8월 18일 익명에 의해 비트코인 도메인(bitcoin.org)이 등록되었고, 같은 해 10월 “Satoshi Nakamoto”라는 이름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개인간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비트코인 논문(bitcoin: A Peer to 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 발표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기존 금융시스템과 달리 화폐를 발행하고 통제하는 중앙화된 기관이나 장치가 없다는 특징이 있어 매우 참신한 발상이었으나, 일부 프로그래머 등을 제외한 일반인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 메인넷이 생겨났고 ‘Satoshi Nakamoto’가 최초 채굴을 통해 50 BTC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Satoshi Nakamoto’가 비트코인을 개발했다고 믿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가상자산거래소 BTC 마켓²⁾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가격을 표현할 때 “사토시”³⁾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의 국적 등 신상은 알려진 바 없습니다.

2) 비트코인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화폐 단위가 되는 시장을 의미하며, 1개 비트코인 가격을 1억분의 1로 환산(소수점 8자리)하여 다른 가상자산의 시세를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비트코인 1개 가격이 1억 원인 경우, 5,273원에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0.00005273 BTC로 표시되며, 투자자들은 해당 가상자산의 가격을 “5273 사토시”라고 흔히 부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비트코인의 탄생과 함께 등장한 기술이 바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블록체인”(BlockChain)이라는 기술입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아도 동 기술에 대한 설명이 다양하게 있지만, 비트코인에 활용된 블록체인 기술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기존 금융시스템과 달리 중앙화된 서버(은행 등)에만 거래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에게 ① 공유하는 기능과 ② 상호 검증하는 기능을 설계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인 기술이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① 특정 거래 발생 시 거래 내역에 대한 기록을 복제하여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에게 똑같이 저장(공유)되고, 거래기록을 가진 각 블록은 이전 블록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블록이 모여 체인을 이루는 형태입니다. 또한, ② 거래 등 발생 시 참여자들의 검증(승인)을 받도록 설계하였고 이러한 검증 기능 덕분에 해킹 등의 위협에도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기술입니다.

한편,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자산의 발행 등 외에 기업체에서 중요 문서 보관이나 보안 등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실생활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라고 전망합니다.

* 공개키 등 거래 과정에서의 검증 방식과 기타 설명은 본 책자의 취지상 생략

피자데이

현재 독자들이 당사자였다면 상승하는 혈압을 못 이겨 큰일 날 수도 있지만, 2010년 5월 22일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라스즐로 한예츠’(Laszlo Hanyecz)라는 남성 프로그래머가 비트코인 1만개로 피자 2판을 주문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는 비트코인이 실물자산(현물)과 교환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지금도 매년 5월 22일을 ‘피자데이’로 지칭하며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벤트까지 진행하는 기념비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본 책자를 쓰고 있는 2024년 4월 11일 오전 9시 53분 기준으로 환산 시 총 1조30억원(피자 한 판당 5,015억원)을 지불한 건데, 거래당사자는 이미 매우 큰 부자이며 그 당시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주문한 것에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Bitcoin Pizza

Broadcasted on 23 May 2010 03:16:31 GMT+9

Notable

Hash ID
a1075db55d416d3ca199f55b4084e2115b97345e16c5c73021c80e9d5f0f5d48d

This transaction was made by Laszlo Hanyecz in 2009 where he paid Jeremy Sturdivant 10,000 bitcoin for two pizzas. It was worth ~\$41 at the time and was arranged on the bitcointalk forums.

Amount 10000.00000000 BTC
+ \$510,894,600

Fee 99000.0000 SATS + \$50,578.57

From 1XP7G-trvH4

To Jeremy Sturdivant

Confirmed

This transaction has 775,074 Confirmations. It was mined in Block 57,043

Summary

This transaction was first broadcasted on the Bitcoin network on May 23, 2010 at 03:05 AM GMT+9. The transaction currently has 775,074 confirmations on the network. The current value of this transaction is now \$510,894,600.

Advanced Details

| | | | |
|-------------|-----------------------|---------------------|---------------------------|
| Hash | a107-d48d | Block ID | 57,043 |
| Position | 1 | Time | 23 May 2010 03:16:31 |
| Age | 13y 9m 6d 17h 28m 13s | Inputs | 131 |
| Input Value | 10000.99000000 BTC | Outputs | 1 |
| | \$510,945,178 | Output Value | 10000.00000000 BTC |
| Fee | 0.99000000 BTC | | \$510,894,600 |
| | \$50,578.57 | Fee/B | 4191.363 sat/B |
| Fee/VB | - | Size | 23,620 Bytes |
| Weight | 94,480 | Weight Unit | 1047841 sat/WU |
| Coinbase | No | Witness | No |
| RBF | No | Locktime | 0 |
| Version | 1 | BTC Price | \$51,089.44 |

▶ 피자데이 전송내역(출처: Blockchain.com)

16



알트코인의 탄생

알트코인(AltCoin)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을 지칭하는 용어로 ‘대안, 대체’라는 뜻의 Alternative와 가상자산을 지칭하는 Coin의 합성어입니다. 세계 최초의 알트코인은 2011년 4월 19일 발행된 네임코인(NMC)으로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와 관계없이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만들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메인 이름 등록을 분산화하여 인터넷 검열을 어렵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알트코인이 발행되었고, 네임코인 역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 총액 1,147위를 기록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중 이더리움과 같은 일부 알트코인은 새롭게 자리 잡아 시장의 다양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2024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집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



PART 2

제2편 가상자산 시장의 격변기



가상자산 시장의 격변기

가상자산 시장의 대장 비트코인은 15년 가량의 역사 동안 탈세 또는 불법 자금의 송금이나 환전 등 악의적으로 이용되거나 너무 큰 폭의 가격변동 탓에 투기상품이라는 등 다양한 비난 여론도 형성됐으나, 점차 사람들에게 투기보다는 하나의 투자상품이라는 ‘자산성’을 인정받으며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 2011년~현재 비트코인 로그차트(출처: Bitstamp)

1 2012년 11월 제1차 반감기

2013년 봄,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섬나라 ‘키프로스’(Cyprus)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키프로스는 유럽연합(EU)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EU는 10만 유로 이상 예금에 대해 40%의 세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재벌의 조세피난처로 불린 키프로스에서는 은행 예금의 30% 상당(200억 유로)을 러시아 재벌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EU의 요구가 알려지자 그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흘러가 급격한 가격 상승이 일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2013년 초 \$13 수준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2013년 4월 9일 최고 \$235를 기록하며 1,700% 상당 상승하였고, 같은 해 11월 30일에는 최고 \$1,163를 기록하면서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연초 대비 8,946%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이 기간 2013년 7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가상자산거래소 ‘코빗’(당시 ‘한국비트코인가상자산거래소’)이 설립되었습니다.

2 2016년 7월 제2차 반감기

2017년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널리 알려진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의 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비트코인은 2016년 8월 최저 \$465에서 2017년 12월 최고 \$19,666를 기록하며 4,229% 상승했고, 알트코인은 수백, 수천 퍼센트는 물론 수만 퍼센트 이상 상승한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소위 ‘김치 프리미엄’⁴⁾이 30% 이상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가상자산 투자

4) 통상적으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대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 가격에 +2~3% 내외의 프리미엄이 붙는데, 이를 국내에서 거래 시 붙는 프리미엄이라는 의미로 ‘김치프리미엄’(소위 ‘김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가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세가 더 높은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 역(-)프리미엄(소위 ‘역프’)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열풍이었습니다.

이런 열풍에 저금리 영향까지 더해져 빚투 현상은 심화되었고, 일부 직장인은 퇴사까지 불사하고 전업투자자로 전직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또한, 시장의 관심이 크게 증가한 만큼 TV프로그램에서 가상자산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 사기는 아닌지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되었고 시골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가상자산에 관심을 갖고 투자에 뛰어드신다고 할 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가상자산 시장은 침체에 돌입했고, “가상자산은 사기다.” 라는 회의적 의견이 지배적으로 퍼졌습니다. 심지어 투자 손실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종종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때가 가상자산 시장 무법지대의 전성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저마다 자체 발행한 ‘거래소 코인’ (배당코인)을 상장시키기 시작했고, 해당 코인을 보유하면 하루 1% 이상 배당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며 가격을 수백, 수천 퍼센트 상승시켰습니다. 또한, 갑자기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지갑 점검 등 사유로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중단하는 공지를 띄우는 순간 수백 퍼센트씩 상승하는 소위 ‘가두리 메타’가 횡행하였습니다. 지갑 점검에 한세월이 걸리는지 입출금 중단은 풀리지 않고 A 거래소에서는 고작 몇천 원에 불과한 코인이 B 거래소에서는 몇십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가상자산의 상장폐지 소식이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각기 다른 여러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데, 특정 거래소가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공지하며 입출금을 중단할 시, 상기한 ‘가두리 메타’와 같은 효과로 작용하여 순식간에 수백 퍼센트씩 상승했던 것입니다.

2020년 5월 제3차 반감기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Covid-19’와 더불어 초저금리 시대에 돌입, 가상자산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고 비트코인 가격은 2020년 3월 최저 \$3,850에서 2021년 4월 최고 \$64,895를 기록하며 1,685%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2017년 최고가(\$19,666)보다 3배 이상 상승하며 그동안 평가손실에 상심하던 투자자들에게 또 다시 큰 희망을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Defi(Decentralized Finance 약자, 탈중앙화 금융),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 토큰), 메타버스(Metaverse, 가상세계) 등 새로운 메타가 등장하며 관련된 가상자산의 시세가 폭발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5월 19일 부처님 오신 날,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최악의 하루였을 것입니다.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 \$43,602에서 최저 \$30,066까지 최대 △31.04% 하락했고 여타 알트코인들도 동반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갑작스러운 트래픽 과부하로 가상자산거래소에 렉이 심하게 걸려 손절 조차 못하는 투자자들도 발생했습니다. 이후 투자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붓다빔’ 또는 ‘무소유빔’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 '무소유밤' 당시 주봉 상황(출처: 코인판 커뮤니티)

이렇게 끝날 것 같았던 시장은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고 2021년 11월 10일 최고 \$69,000에 도달하며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직후 하락이 시작되었고 루나 사태, FTX 사태 등 악재가 겹치며 2022년 11월에는 최저 \$15,479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가상자산 시장은 점차 회복하였고 투자자들은 2024년 4월 예정된 4차 반감기를 앞두고 비트코인 가격의 전고점 돌파 여부에 대한 관심,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 거래소 | | | |
|----------------------|--------|--------------------|-----------|
| 한글명 | 현재가 | 전일대비 | 거래대금 |
| AXS/KRW | | -3,730 | |
| 스텔 *** XLM/KRW | 439 | -45.53% -367 | 339,460백만 |
| 스토 ** STORJ/KRW | 1,045 | -45.85% -885 | 14,396백만 |
| 펀디 ** PUNDIX/KRW | 1,490 | -45.82% -1,260 | 42,499백만 |
| 시아 ** SC/KRW | 18.10 | -45.97% -15.40 | 37,036백만 |
| 스테이터스 *** SNT/KRW | 103 | -46.63% -90.00 | 89,730백만 |
| 퀀 * QTUM/KRW | 12,120 | -46.13% -10,380 | 300,751백만 |
| 아 * ARK/KRW | 1,450 | -46.98% -1,285 | 952,513백만 |
| 비트코 *** BTG/KRW | 59,130 | -45.90% -50,170 | 87,669백만 |
| 칠 ** CHZ/KRW | 280 | -46.36% -242 | 57,103백만 |
| 스 *** SXP/KRW | 2,555 | -46.44% -2,215 | 63,632백만 |
| 써 *** THETA/KRW | 6,450 | -47.22% -5,770 | 41,449백만 |
| 네 * NEO/KRW | 56,780 | -47.88% -52,170 | 241,628백만 |
| 던 **** DAWN/KRW | 3,035 | -47.72% -2,770 | 89,396백만 |

▶ '무소유빔' 당시 거래소 상황(출처: 코인판 커뮤니티)

2024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집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



PART 3

제3편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7선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7선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표적인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피해 사례를 제보된 내용과 파악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최대한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다소 자극적이고 직설적 표현이 포함될 수 있으나, 직감적으로 와닿는 표현을 통해 본문을 읽는 독자의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유사한 사기수법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점에 대한 이해를 구합니다.



접근방식

- SNS, 채팅 어플, 데이트 어플
- 유튜브 등 연락처 기재
- 지인 소개, 낯선 번호로부터의 연락
- 가상자산거래소 직원, 공무원 등 유명인 사칭



회유방식

- 저가매수를 통한 고수익 보장
- 일 2%~5% 안정적 수익 보장
- 손실보전
- 단체 카톡방 등 수익인증 (바람잡이)
- 수익을 통한 명품 소비 과시
- 미공개정보 공유
- 검증되지 않은 경력 (투자대회 수상 등)



사기수단

-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 (링크 전송 등)
- 상장 예정 코인 (위조 문서 사용)
- 락업 코인 판매 (개인 지갑 형성 요청)
- 가상자산 이용 경매
- 리딩방, 대리매매
- 정상적 가상자산거래소 사칭 (유사한 도메인 주소 사용)
- 유명 코인과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



사기방법

- 리딩, 투자지시를 통한 수익 발생
- 지급보증서 등 약정을 통한 신뢰 확보
- 초기 또는 소액에 대한 출금 정상화, 추가 입금 권유
- 고액 입금 시 출금 거부, 세금 등 명목으로 추가 입금 요청
- 가상자산거래소 내 대출 유도를 통한 가상자산 전송
- 연락 두절, 잠적

STORY 1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사기



요약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투자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



피해사례

투자자 甲은 유튜브 방송,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라인 등 SNS 에서 투자 교육, 종목추천 등을 광고하는 낯선 사람 A로부터 투자대회에서 입상한 투자고수 B에게 교육도 받고 종목 추천도 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또한, A는 甲에게 투자고수 B의 교육방송을 시청하거나 퀴즈 정답을 맞추는 등 각종 미션을 달성하면 ★★★가상자산거래소(FIU 신고 의무 미이행) 지갑에 포인트가 지급된다고 공짜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회원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甲은 A의 말대로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방송을 시청하는 등 미션을 완수했더니 이후 실제로 포인트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甲은 불안한 마음에 무료로 받은 포인트를 출금해보니 정상 출금이 이루어졌고, 이후 甲은 ★★★ 가상자산거래소가 정상적인 업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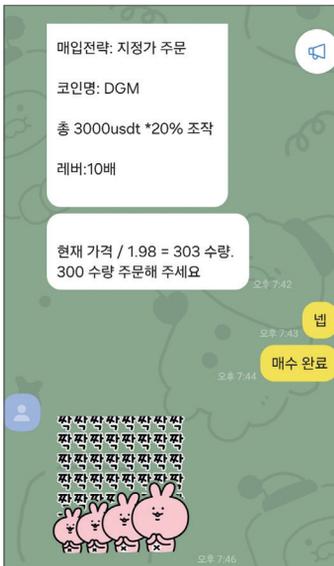
이후 A는 甲에게 투자고수 B의 투자자문 등을 내세우며 계좌이체를 통한

투자금 충전을 유도하였고, A와 B는 해당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종목에 대해 매수-매도를 지시하며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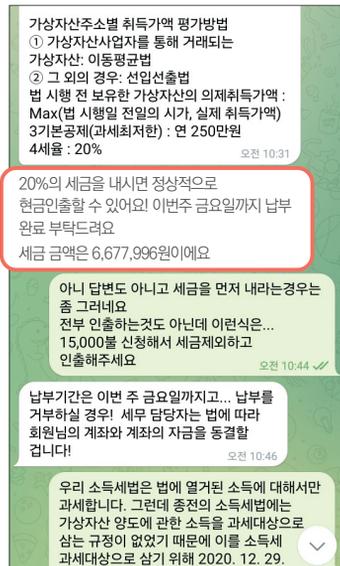
그러나 甲이 원금과 투자수익에 대해 출금을 신청하니, 갑자기 ★★★ 가상자산거래소는 보증금 명목으로 출금희망가액의 30%만큼 추가 입금이 이루어져야만 출금이 가능하다고 추가 입금을 권유하였습니다.

甲은 투자원금과 수익금 수천만원을 포기할 수 없어 추가 자금을 이체하였으나, 이번에는 소득세법을 언급하며 세금 명목으로 출금희망가액의 25%를 추가 입금하라고 종용하였습니다.

도저히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甲은 ★★★가상자산거래소에 강하게 항의하였으나,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차단당하고 자금은 동결된 채 원금조차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매수지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처: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접수사례)



▶ 출금거부 대화내용
(출처: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접수사례)



피해예방을 위해

① **(투자권유 대응)** 시장경제의 목표 중 하나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며, 이러한 목표가 필요한 이유는 시장에는 배분 가능한 자원, 즉 최종 파이(Pie)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SNS를 통해 접근하는 낯선 사람이 그렇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본인 **혼자 투자하고 돈 벌면 되는데, 굳이 타인에게 투자수익을 창출해주며 본인 몫의 파이를 나누어 줄 이유는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낯선 사람이 왜 갑자기 일면식도 없는 나에게 접근하는지 항상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 여부 확인)** 우리나라에게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은 「동법」 제7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6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 등을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에 게시할 수 있고, 현재 신고한 사업자 현황을 게시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타인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았더라도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본 사례와 유사한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고 사업자 현황은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홈페이지(www.kdaxa.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미신고사업자에 대한 제보도 가능합니다.

③ **(투자금 충전)** 현재 은행과 제휴를 맺은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5개 社)의 경우, 투자자는 실명 확인된 본인 명의 입출금계좌를 만들어 해당 계좌에 입금 후, 거래소에서 원화 포인트 충전을 신청하면 동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며 거래소의 본인 계정에 원화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반면, 사기 피해사례 대부분은 **업체가 요청하는 계좌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 또는 이체된 금액만큼의 USDT⁵⁾를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등 차이가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④ **(출금을 위한 추가 입금)** 보증금이나 세금 등을 이유로 **추가 입금이 이루어져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말은 사기꾼들이 투자자의 피와 땀을 한 방울이라도 더 훔치기 위해 현혹하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보증금은 존재할 이유가 없고, 세금도 국가에서 과세 유예를 한 상황인데 도대체 누구한테 납부한다는 말일까요? 이미 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각종 사유로 요구하는 **추가 입금에 응하면 추가 피해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신고) 제1항

-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신고) 제7항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정보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제10조의16(신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에 관한 정보**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조치를 공개하는 때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일반 투자자 모두 조회 가능

5) 가상자산 가격이 미국 달러 가치와 1:1로 대응되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으로서 편의상 달러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며, 앞서 머리말(8p)에서 언급된 'UST'와 후술할 'NFT 경매 사기'사례(68p)의 'USDC' 모두 스테이블 코인에 해당합니다.

STORY 2

락업코인 판매(블록딜) 사기



요약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며 락업 설정된 코인 투자를 권유받았으나, 락업 해제일 가격이 폭락하여 손실을 입은 사례



피해사례

투자자 甲은 ○○투자그룹(○○투자티비)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다가 연락처 기재란에 번호를 남기면 주식정보를 공유해주는 카톡방에 초대해주겠다는 내용을 보고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며칠 후, 甲은 ○○투자그룹 부장이라는 A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A는 매일 주식 추천 정보와 다른 회원으로부터 받은 수익률 인증 사진을 보내며 회비를 입금하면 앞으로도 계속 투자 정보를 공유하며 매수·매도 시기까지 알려주겠다고 종용하였습니다.

甲은 본인이 직접 주식 어플로 매수·매도를 하는 방식인지 문의하였고 “그렇다.”는 답변에 안심하며 회비를 입금하였습니다. 곧장 A는 甲에게 종목 상담을 위해 매수한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였고, 해당 종목은 오를 가능성이 낮다며 매도를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A는 회사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극비 사항이니 절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말라며 ★★코인을 추천했습니다. 조만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 예정인 ★★코인이 현재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3,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6개월의 락업⁶⁾(Lock-up)을 설정하는 대신 1,0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시 6개월 이내에 최소 400% 이상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 현혹하였습니다.

또한, 락업은 초기 투자자의 시장 거래가를 지키기 위한 명목상 기간일 뿐 그 이전에도 매도할 수 있고, 손실 발생 시 재단에서 모든 손해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하며 불안을 잠재웠습니다. A를 믿은 甲은 A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투자금 1천만원을 입금(★★코인 1만개 매수)하였고, 이후 A가 사용하라고 지시한 지갑 어플에 해당 코인이 입금되자 甲은 안심하였습니다.

1개월 가량 시간이 흐른 후, B라는 사람으로부터 甲에게 ★★코인의 대주주가 되고 싶다고 하며 甲이 1,000원에 매수한 코인을 5,000원에 매수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만, B는 락업 기간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최소 3만개의 코인이 필요하다고 하며 2천만원으로 2만개를 추가 매수한 후 본인에게 전량 매도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즉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 甲은 추가 매수를 진행한 후 B와 미팅 약속을 잡았으나, 약속한 날 B는 연락이 두절되어 의도치 않게 2천만원을 추가로 투자한 결과를 낳았고, 이후 ★★코인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소식은 들리지 않은 채 락업 해제일 이후 △99% 이상 폭락하여 투자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6) 가상자산이 일정 기간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묶어 놓는 것을 의미하며 주식시장에서의 보호예수와 유사합니다.



▶ 락업코인 판매 피해 사례(고점대비 Δ 99.53%하락)
(출처: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접수사례)

피해예방을 위해

① **(사기꾼의 접근 방식)** 본 사례는 피해자가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다가 본인의 연락처를 남겼으나, 다른 사례에서는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는 유료 사이트에 가입했던 사람, 주식이나 코인 유료 리딩방에 가입했던 사람, 토토 사이트 또는 베팅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에 가입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사기꾼들이 입수하여 **금융감독원 등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왔다**며 과거 로또, 리딩방, 토토 사이트 등에서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연락한다**고 속이는 경우 또는 에어드랍 이벤트 등에 당첨되었다며 연락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주식 등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위반이며, 같은 맥락으로 금융감독원 등 기관에서 직접 손실을 보상하라고 명령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리딩방을 통해 좋은 종목을 잘 추천하라고 지시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는 사기꾼들이 관련 법규에 취약한 선량한 투자자를 속이는 하나의 수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하루가 멀다하고 날아 오는 대박종목, 비밀종목 추천 문자 등 나의 이름,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된 건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특정 인터넷 사이트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개인의 인적사항을 사고파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바, 다소 충격적일 수 있으나, 우리가 그동안 가입해왔던 수많은 곳에서 정보를 팔아 넘겼거나, 해당 사이트 해킹을 통해 모은 개인의 인적사항 DB를 통째로 사고파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으니 늘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② **(다른 회원의 수익률 인증)** 사기를 치기 위해 특정 개인 혼자 활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보통 TM(Tele Marketing), Leading,

돈세탁 등 업무가 나눠진 팀 단위로 움직이며, 흔히 리딩방에는 허위로 수익률을 인증하거나, 지시자 시그널에 따른 매수·매도 인증을 하거나, 수 억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출금했다고 인증하거나, 지시자와 특정 코인을 찬양하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소위 “바람잡이”가 존재합니다.

보통 같은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을 나와 같은 처지의 투자자라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며 인증하는 ‘찬양 글’마저도 모두 거짓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쉽게 믿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③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예정)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부분은 신규 코인 상장 여부에 대해 **극비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가 유출되거나 내부직원이 직접 매매에 가담하는 경우 매우 **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특정 가상자산거래소 신규 상장 예정인 코인에 관한 정보는 감독당국에서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여부는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그런 비밀 정보를 알 수 있겠으며, 설령 알게 된다 한들 그렇게 얻기 힘든 정보를 일면식도 없는 독자 여러분께 수습 차례 먼저 연락하면서까지 알려준다는 말입니까? 타인이 매수하면 본인이 더 싸게, 더 많이 선취매 할 기회가 줄어드는데도 말입니다. 본인이 돈 벌 기회까지 포기하며 독자 여러분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천사의 부름과 같은 말은 사실 **악마의 속삭임**과 다름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④ (락업 해제일 이후 시세 폭락) 락업코인을 판매하는 사기꾼들은 애초에 본인들이 10분 내외 투자해서 만든 엉터리 코인을 들어본 적도 없는 해외 낯선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 수수료(상장 Fee)로 3~5천만원 가량 지불하고

상장시킵니다. 이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 자전거래⁷⁾를 계속하며 특정 가격(본 사례의 경우 3,000원)을 유지시킵니다. 동시에 투자자에게는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위대한 코인인 것처럼 홍보하며 투자금을 편취하고, 락업 해제일 전에는 모든 물량을 시장에 폭포수처럼 쏟아내 가격을 1/100, 1/1,000 등 수준으로 폭락시켜 버립니다. 그럼에도 독자 여러분은 국내 또는 해외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속아 **위험성 높은 투자**를 감행해야 할까요? 꼭 그것만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⑤ **(고수익 보장)** “High Risk-High Return”이라는 유명한 말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기업이나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학문인 ‘재무관리’에서는 특정 주식의 기대수익률을 무위험수익률과 위험프리미엄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E(R_i) = R_f + [E(R_m) - R_f] * \beta_i$$

* $E(R_i)$: 개별 종목 기대수익률

R_f : 무위험수익률(≒예금금리 등)

$E(R_m)$: 시장 기대수익률(≒코스피 지수 등)

β_i : 베타(위험 계수 = 변동성 지표)

$[E(R_m) - R_f] * \beta_i$: 위험프리미엄

위 산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별 종목의 기대수익은 결국 위험 계수이자 변동성 지표인 베타(β_i)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 함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7) 외관상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또는 특정 가격을 형성하거나 유지시키기 위해 시세조종 혐의자群끼리 물량을 주고받는 매매 양태로 보통 동일한 가격에 매수, 매도 주문을 넣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많이 들어보았던 ‘High Risk-High Return’이라는 말이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되고 실제 기업 가치를 산출할 때 혹은 특정 주식의 고평가·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매우 큰 수익을 줄 수 있다는 말**은 수학적으로 보아도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와 동의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기꾼이 제시하는 청사진에 현혹되어 이를 **망각하는 순간**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고, **‘우리 VIP 호갱님들’** 명단에 등재될 위험이 높아질 것입니다.

⑥ **(추가투자 유도)** 대주주가 되고 싶다면 비싼 가격에 매수를 제안하며 추가 투자까지 유도하는 악질적 방식을 접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마른 오징어도 이렇게 짜내면 진물이라도 나오겠구나...”

서민의 피같은 돈을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기 위해 고안해 내는 수많은 아이디어는 기발하다는 생각마저 들고, 그럴수록 쉽게 유혹에 속아 넘어간 사기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관계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STORY 3

로맨스 스캠 사기

요약

SNS 등으로 접근한 낯선 이성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았으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래소였고 추후 투자금 출금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사례

피해사례

투자자 甲 등(이하 ‘甲’)은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틱더, 링크드인, 위챗, 미프, 라인, 카카오톡 오픈채팅, 오늘도 엽서, 해돌, 정오의 데이트, 인터팔 등 채팅 어플이나 SNS를 통해 접근한 이성 A 등(이하 ‘A’, 국적: 홍콩, 싱가포르, 일본, 중국, 대만, 한국 등)으로부터 게시글에 관심이 있다거나, 한국 여행, 출장을 계획 중이라거나, 이성적으로 마음에 든다는 호감 표현을 받았습니다.

甲은 A와 짧게는 1주, 길게는 1개월 가량 대화를 나누며 사소한 일상은 물론, 이혼 후에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각종 고충 등을 공유하며 점차 깊은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서로 충분히 친해진 이후 A는 甲에게 본인이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얻었다며 수익률 인증 사진과 명품 쇼핑을 즐기는 사진을 공유해 주었고, 甲이 이에 부러움을 표하자 A는 “자신의 삼촌이 가상자산을 10년간 연구해온

전문가이며, 삼촌의 허락을 구해 투자 정보를 공유해 주겠다”, “그동안 잃은 돈을 복구하도록 도와주겠다”며 본인의 지시에 따라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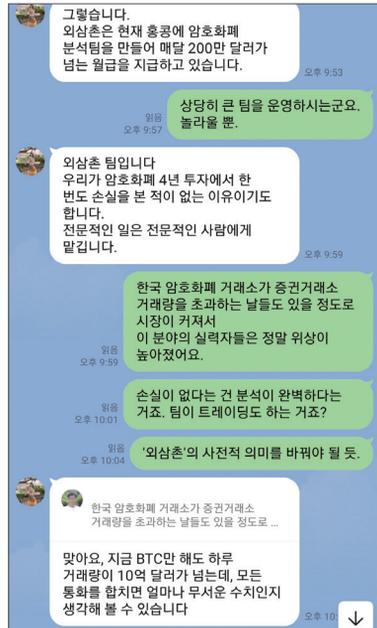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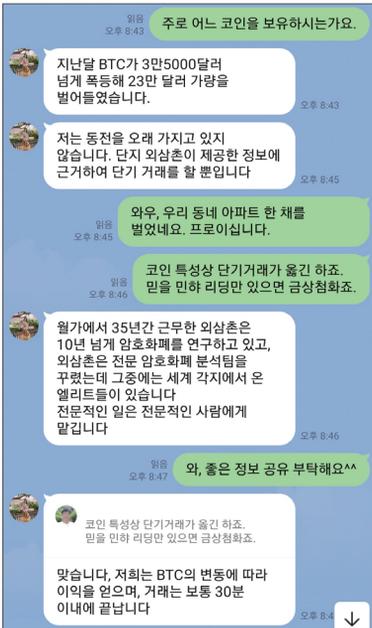
평소 자녀 육아비용 등에 큰 부담을 느껴왔던 甲은 그동안 A와 쌓은 친분, 투자 정보를 공유해주겠다는 호의를 믿고 비상금 1,000만원을 꺼내 A의 안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하고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평소 알지 못했던 가상자산거래소(FIU 신고 의무 미이행) 어플을 설치해 전송하였고, A의 지시대로 매매에 참여하니 실제 큰 수익이 났습니다. 심지어 다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하여 원화로 출금하는 것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자 A에 대한 甲의 신뢰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A는 조만간 큰 거래가 있는데 본인이 삼촌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甲이 같이 매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으며, 증거금이 최소 20만 달러이며 수익률은 25%를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甲은 대출을 통해 3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입한 뒤 A가 소개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하였고, 매매를 통해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후 A는 또 다시 큰 거래가 있는데 증거금이 60만 달러이며 수익률은 1회당 45%를 예상하니 추가 증거금을 넣어 같이 매매를 해보자고 권유하였습니다. 추가 자금을 끌어모을 수 없었던 甲이 더 이상은 어렵다고 말하자 A는 본인이 15만 달러라도 빌려줄테니 나머지만 어떻게든 입금하라고 계속 재촉하였습니다.

추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를 이행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K로부터 ‘돼지도살 스캠’⁸⁾(로맨스 스캠)투자사기 주의 안내 문자를 받고 본인과 유사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 甲은 급히 A가 소개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출금 신청을 하였으나, 출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보안상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세금으로 출금희망금액의 25%를 추가 입금해야만 인출이 가능하다며 출금을 지속적으로 거부했습니다. 甲은 직장생활 20여년 간 모아온 전 재산을 잃었다는 사실에 자책하고 있습니다.



▶ 로맨스 스캠 메시지 대화내용(출처: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접수사례)

8) 돼지도살(pig butchering): 투자사기 기법으로 로맨스 스캠과 가상자산 투자 스캠의 혼종. 마치 돼지를 살찌게 한 뒤 많은 고기를 얻는 것처럼, 사기꾼은 피해자들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피해자를 부추겨 가상자산을 구입하게 한 뒤 초기에 돈을 불려주어 점차 투자 규모를 높게 한 후 그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며, 이 과정에서 약간의 '로맨스' 요소도 첨가됩니다.

피해예방을 위해

① **(사기꾼의 접근 방식)**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부분의 피해 사례에서는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접근 방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오프라인**상에서도 지인의 소개 형식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호감과 신뢰를 얻은 후 같이 가상자산에 투자해보자고 권유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② **(투자 수익 창출)** 본 사례와 같이 매매 지시(리딩)를 통한 수익 홍보 외에 미술품 등 NFT 경매를 홍보하며 특정 가상자산거래소 또는 개인지갑(메타마스크 등)으로 코인을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등 매우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사기꾼들은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소재로 투자자들을 현혹할 것이므로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사례를 단순히 열거하는 방식만으로는 모든 피해를 예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선량한 투자자들이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SNS를 통해 접근하는 낯선 사람(특히 이성)**에 대한 의심의 끈을 놓지 말고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어떻게든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뒤, 해당 자금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나 익명의 개인지갑 등으로 옮기며 자금 세탁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로 인해, 이미 **사기꾼에게 넘어간 금전은 다시 복구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전 예방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③ **(지시대로 매매한 결과 발생하는 손익)** 다른 피해 사례에 따르면 피해자는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업체의 지시대로 매매했을 때 승률 100%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무언가 수상했던 피해자는 지시하는 대로 매매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의 차트를 관찰했고 실시간 차트가 달라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표시**되어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라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시장 참여자가 많은 마켓이 아닌 일부 사람들만 별도로 모여서 거래하는 사기를 위한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는 차트가 다른 시장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고,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조차 되지 않은 코인을 대상으로 매매 지시하여 투자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설령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차트상으로만 그와 같이 표시되고 전산 조작을 통해 차트와 무관하게 손익이 발생한 것처럼 표시해 투자자를 속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 여부 확인)** ‘피해사례 1’(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사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하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낯선 자로부터 투자를 권유받는 경우 그 가상자산거래소가 **신고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사기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으며, 거래소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 보증금이나 세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지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STORY 4

유명 코인 사칭 사기



요약

시가총액도 크고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였으나,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이었고 판매 업체는 잠적해버린 사례

피해사례

甲은 SNS 등을 통해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도 큰(순위 100위 이내) 인지도 높은 ★★코인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A 업체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A 업체는 甲에게 ★★코인이 국내 다른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상장할 예정이나, 동 거래소에서 상장을 위해 유통량을 추가적으로 늘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 불가피하게 추가 물량을 공급하게 된 것이며, 투자하는 것 자체로 수백 퍼센트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기회라고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갑자기 시장에 다수의 물량이 공급되면 시세가 급락할 유인이 있어 재단과 협의 하에 일정기간 락업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약속된 기한까지 락업이 해제되지 않을 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진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확약서)까지 보여주며

안심시켰습니다.

한편, A 업체는 ★★코인이 이미 메인넷이 완료되어 입출금 등 전송 시 해당 코인의 메인넷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송해야 함에도, 이와 전혀 무관한 TRC-20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속이며 해당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개인지갑을 만들 수 있는 주소(링크)를 전달하며 지갑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라고 종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설명을 믿은 甲은 A 업체에서 요구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고, 이미 만든 개인지갑에 약속된 ★★코인을 전송받았으나, 동 코인은 이름만 인지도 높은 “진짜” 코인과 동일하고 컨트랙트(Contract) 주소 등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이었으나 가상자산 투자에 생소한 甲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추후 락업이 해제되는 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락업 해제가 예정된 날 후에도 락업은 풀리지 않았고 甲은 투자를 권유한 A 업체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A 업체는 이미 SNS 등을 모두 삭제한 채 잠적한 뒤였습니다.

〈확약서〉

A 업체는 ★★코인의 정상적인 보호예수 해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확약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합니다.

제1조 (목적)

- 본 확약은 현재 0000 및 국내 000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 및 거래되고 있는 ★★코인을 당사가 약속한 대로 202X년 XX월 XX일 00시 정상적으로 보호예수를 해제할 것을 확약하며, 불이행 시에는 A 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제2조 (고객보호)

- 202X년 XX월 XX일 00시까지 ★★코인의 보호예수가 풀리지 않을 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A 업체에서 전액 보상합니다.

제3조 (성실의 원칙)

- A업체는 본 확약 각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성실의 원칙에 따라 확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202X년 XX월 XX일

A업체

이사장 ○○○(인)

▶ A업체 제시 확약서 사례(재구성)

피해예방을 위해

① **(시세 대비 저렴한 공급)**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1년 예금 금리가 4% 내외인** 상황에서 현재 시세 대비 30% 수준의 가격에 매입한 뒤 가만히 앉아 **수 개월 뒤 200%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데, **사기꾼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이런 투자 기회를 본인이 활용하지 않고 남에게 권유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기꾼들은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외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는 등 **그럴싸한 핑계**를 대겠지만, 고작 몇 개월만 버티면 되는데 굳이 일면식도 없는 남한테 수백 퍼센트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투자 기회를 넘겨주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 투자 기회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금을 끌어모아 한 푼이라도 더 혼자 투자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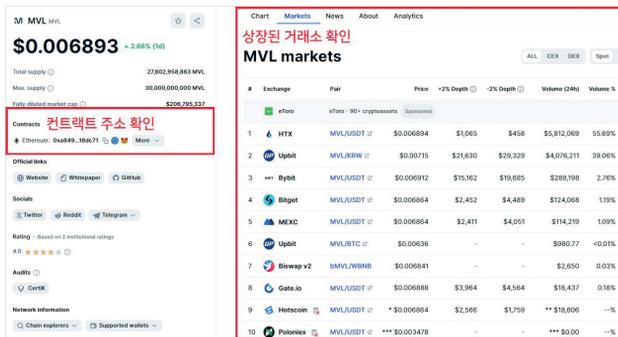
‘피해사례 2’(락업코인 판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개별 종목의 기대수익률이 높다는 건 β (베타)라는 위험 지표의 계수 값이 크다는 뜻이며 여기에는 가격 변동성 뿐만 아니라, 사기의 위험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상자산 피해 사례 대부분이 고수익 보장 등에 현혹되어 발생한 것임을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게 해준다는 유혹**에만 안 넘어간다면 본 책자에 기재된 **모든 피해의 99%**는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가짜 코인)** 본 건 사례에 등장하는 가상자산은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코인**과 겉으로 드러나는 이름만 같고 Contract 주소는 다른 “가짜”, “사칭” 코인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는, **★★코인**은 이미 자체 메인넷이

완료되었음에도, 투자를 권유한 업체는 굳이 TRC-20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며 동 코인을 전송받기 위해 별도의 지갑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coinmarketcap’⁹⁾에서 ★★코인 검색 → ‘network information’ 란에 TRC-20 방식의 네트워크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본 결과 조회되는 사항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A 업체가 주장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전송 내역을 추적해본 결과 “진짜” 코인과 발행일자 등이 모두 상이했으며, 수많은 지갑 주소로 “가짜” 코인이 전송된 후 모두 회수·소각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로부터 “(그 어떤 핑계를 막론하고) 현재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최소한 Contract 주소¹⁰⁾라도 확인해본다면 피해를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Coinmarketcap 조회 화면(본 사례와 무관)

9) 코인마켓캡: 전세계 거래소별로 거래량과 순위를 보여주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https://coinmarketcap.com>)

10) Contract 주소: 코인별 가지는 고유값으로 금고로 비유하면 개인금고가 아닌 공공금고처럼 한 계열 토큰들이 함께 사용하는 주소

③ **(지급보증서(확약서) 작성)** 본 사례와 유사하게 **피해에 대한 보상 계약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경우가 매우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 사전에 이 업체가 사기의 의도를 가지고 거짓으로 작성해주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독자들 중 각종 투자를 경험해 본 분이라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에서 쉽게 큰 돈을 버는 경우는 결코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제로섬(Zero-Sum) 게임과 같이 필연적으로 누군가 손해를 보아야만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시장의 생리상 절대로 남에게 이유 없이 이익을 안겨주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전업투자자 조차도 힘들게 스트레스 받아가며 매매로 익절도 하고, 마음 아픈 손절도 하면서 수익을 얻고자 고군분투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진부한 말이나 행동이 어찌면 진리인 건 아닐까요?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갑자기 하늘이 나를 돕는 듯한 상황은 오지도 않고 올 이유도 없습니다. **사기 치려고 마음먹은 자들이** 어차피 뒤가 없는 마당에 거짓 계약서 따위 작성하는 게 뭐가 무섭겠습니까? **지급보증서니, 확약서니,** 어떤 형태의 서류를 작성해주더라도 **결코 쉽게 믿어서는 안되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STORY 5

가상자산거래소 직원 등 사칭 사기

요약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임직원(또는 검찰 등)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한 뒤, 위조 문서를 제시하며 신규 상장 예정 코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서 투자금을 편취한 사례

피해사례

어느 날 甲은 낯선 번호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상대방은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근무하는 A 팀장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조만간 신규 상장 예정인 ★★★★★코인에 대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이 수상했던 甲은 처음에는 투자 제안을 거절했으나, A는 ★★★★★코인이 곧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다는 기사를 보내주었고 3개월 후에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상장될 예정이며 최초 구입가는 600원이나 몇 개월 후 상장 시 5,000원에 팔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甲이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자 이번에는 B 본부장이라는 자로부터 연락이 왔고, B는 본인 명함과 함께 자신도 대출까지 받아 ★★★★★코인에 2억원 상당을 투자했다며 甲을 회유하였습니다. 甲은 가용 자금 범위 내에서 일부 투자하였고 A가 보내준 바코드를 통해 본인이 투자한 자산 목록을 조회하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甲은 A로부터 ★★★★★코인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되어 매수가 대비 2.5배 수준 가격에서 거래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A는 매일 동 코인의 시세 변동 및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 안내해주어 甲은 결국 A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매수가 대비 2.5배 상당의 가격에서 거래중이고, 2-3개월 후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시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甲은 최초 투자금보다 더 큰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였으나, A와 B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신규 상장 예정 직전일부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심지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이 예정되었다며 A가 보내준 공지사항 조차 모두 위조된 문서로, 해당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거래] 원화마켓 신규 상장

등록일 2023.12.13. 11:00 | 조회수 5772

안녕하세요 []입니다.

[]가 [] 원화마켓에 상장합니다.

원화마켓에서 [] 거래 시, 아래 초기 5분 매수 제한 조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께 안전한 거래 환경과 정확한 시장 정보 제공을 위하여 원화마켓 상장 후 초기 5분간 아래와 같은 조건의 주문이 제한되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1) 원화마켓 신규 디지털 자산 상장시, 초기 5분간 매수 주문이 제한됩니다.
- 2) [] [] 마켓 전일 증가(3800 KRW) 기준의 -10% 이하의 가격으로는 매도 주문이 제한됩니다.

※ 투자 위험 안내 : 디지털 자산 투자는 투기적 수요 및 국내외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급격한 시세 변동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본 디지털 자산의 투자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발생 가능한 손실도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디지털 자산의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신중하게 거래해 주시기를 당부해드립니다.

[추가 디지털 자산]

[]

[] 시와 분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 블록체인을 융합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새로운 분산형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기존의 고민거리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블록체인 상에서 실행되는 탈 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데이터 세트와 컴퓨팅 리소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고 확장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자체 토큰인 [] 이용하여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대상 마켓]

원화마켓

* PC 및 모바일 웹에서 해당 코인 조회가 안되는 경우, 새로고침(F5) 클릭 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아이폰, 안드로이드에서 혹시 해당 코인 조회가 안되는 경우, 내정보 > 화면설정 > 코인정보 다시 받기를 클릭 후 확인 부탁드립니다.

▶ A가 보낸 위조 서류(재구성)

수신 : 개발팀, 상장팀, 홍보팀
 제목 : 사전 공지사항 검토 및 신규상장 관련 회의록

안녕하세요

[]입니다

2024.02.23. (금) 18:00 [] 토큰이 원화 마켓에 추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거래지원]

- 지원 마켓 : 원화 마켓
- 거래 시장 : 2024.02.23. (금)
- 기준가 : (KRW) 6,000원

■ []
 [] 안전하고 권리가 용이한 고성능 인프라 사이드체인을 통해 새로운 분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호 HPC, 빅데이터, 클라우드 산업의 선도적인 화두를 담당하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된 인프라의 미래를 모색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빅데이터, HPC 어플리케이션 및 고 가치 데이터와 컴퓨팅 리소스를 최고 수준의 투명성, 회복성, 보안성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 공식 홈페이지
- ▶ 프로젝트 백서
- ▶ 가상자산 검토 보고서

※ 회의 내용

1. 홍보팀에서 위 공지사항을 게시하는 날짜를 결정
 - 공지사항 게시일은 2024.02.23. (금) 10:00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기로 결정한다.
2. [] 상장일시를 결정
 - 2024.02.23. (금) 17:10 결정한다. / [] 거래 테스트 보고서 1부 (참고)
3. 상장 이벤트 및 [] 에어드랍 관련 최종 상의(미정)
 - 결정된 바 없음

▶ A가 보낸 위조 서류(재구성)

 피해예방을 위해

① (락업 조건) A 등은甲에게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에 대해 락업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판매였다는 점에서 ‘피해사례 2’(락업코인 판매)의 경우와 매우 유사(또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임직원을 사칭**하여 보다 수월하게 신뢰를 얻고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사항입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 임직원 외에도 ①검찰·금융감독원·공무원 등 **공직자 사칭**, ②증권사 직원·애널리스트·유튜버 등 **투자 전문가 사칭**, ③교수 강사 등 **교육 전문가 사칭**, ④연예인·작가 등 **유명인 사칭**을 통한 ‘피해사례1~5’의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례로, 투자자 乙은 검찰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본인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피해가 발생했으니, 계좌 내 자금이 불법적 수단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는 증빙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의 **국가 안전 계좌로 가상자산을 전송해야 한다는 설명에 속아 1억원 상당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②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예정) ‘피해사례 2(락업코인 판매) 피해 예방을 위해’ 부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부분은 신규 코인 상장 여부에 대해 극비사항으로 관리하고 있고,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여부는 더더욱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에는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신규 상장 예정이라는 말에 속아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상장 정보를 미리 입수해 특별히 공유해준다**는 소리는 99.99%, 어쩌면 **100% 허언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반드시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③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공지 위조)** 본 사례와 같이 가상자산거래소 **공지사항도 위조**하여 투자자를 속이고, ‘피해사례 4’(유명 코인 사칭)와 같이 **지급보증서(확약서)까지도 위조**하는 경우가 확인되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하기 전에 문서의 위·변조 여부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렇게 문서를 위조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누군가가 이런 문서를 보여주더라도 쉽게 믿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④ **(가상자산거래소 도메인 주소 사칭)** 한편, 또 다른 피해 신고 사례에서는 정상적 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 화면과 도메인 주소를 가장하는 경우가 확인되었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가상자산거래소와 동일하게 홈페이지 화면을 꾸미고, 도메인 주소도 유사하게 만들어 투자자를 기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FSSbit.com이 정상 주소라면** 사기꾼들은 FSS-bit.com, **FSSbit.kr** 또는 **FSSbits.com 등 매우 유사하지만 일부 차이**가 나도록 주소를 설정하여 해당 사이트가 **허위**라는 사실을 투자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만큼, 만일 가상자산 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았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업체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맞는지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홈페이지 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한편, 구글 피싱 사이트 광고를 올려 투자자 보유 가상자산을 해킹하는 사례도 존재하므로, 가상자산거래소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통하지 않고 단순히 **구글 검색을 통해 접속**하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STORY 6

가상자산 리딩방, 대리매매 사기



요약

가상자산 유료 회원 리딩방, 대리매매 홍보 글을 보고 참여했으나 환불을 제대로 안해주거나, 출금을 거부 당하거나, 모두 손실로 이어지게 된 사례



피해사례

(사례1) 甲은 가상자산 투자 과정에서 평가손실을 보던 중 가상자산 관련 유튜브 채널 영상을 시청하였고, 평가손실 중인 종목에 대한 상담을 받고자 영상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칠 후 甲은 A 팀장이라는 자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A는 곧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작되는데 수익을 봐야하지 않겠냐며 현재 甲이 보유중인 종목을 관리해주고 매매에 조언(리딩)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甲은 평가손실이 답답했던 마음에 가장 낮은 등급의 유료회원(3개월 100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甲이 가입하자마자 A는 현물로는 수익 내기 어려우니 선물거래를 하도록 지속 권유하였을 뿐이고 심지어 연락도 어려워짐에 따라, 甲은 2주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A는 리딩방 입장료 자체가 50만원이라며 해당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고작 7만원 상당액만

환불해 준 이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사례2) 乙은 우연히 주식 리딩방(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단톡방에서는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 가상자산에 투자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방장 B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거래소를 알려주며 가입을 권유하였습니다.

乙은 그동안 B와 같이 투자해온 시간이 있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보유중인 주식을 정리하고 소개받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乙이 가상자산 투자로 전향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상자산 투자 전용방이라며 초대받은 텔레그램에서 강퇴당하고 B가 가입을 권유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투자금을 출금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례3) 丙은 텔레그램에서 가상자산 대리매매를 홍보하는 C에게 자신이 처한 힘든 상황들을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들은 C는 수익률 인증 사진을 보내주며 본인의 매매 승률이 80%에 달한다고 자랑한 뒤 유료회원 리딩방이나 대리매매를 통해 도움을 주겠다 제안하였습니다. 대리매매는 C가 丙의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에 직접 접속하여 매매한 후 수익금을 50:50으로 정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매매도 힘들었고 자신감도 떨어졌던 丙은 C에게 대리매매를 맡겼고, 본인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에 자금을 충전한 뒤 C에게 ID와 PW를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C는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 선물을 거래하며 레버리지도 25~40배를 쓰면서도, 청산은 절대 없다며 금방이라도 큰 수익이 날 것처럼 丙에게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C는 대리매매를 시작한 다음 날 첫 거래부터 손절했고 그 다음 날에는 강제청산까지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丙은 C를 계속 믿었고, 추가 자금까지 입금하며 응원했으나, C는 스탑로스(지정가 자동 손절 기능) 조차 설정하지 않으면서 매매를 진행했고, 심지어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 150배 레버리지를 쓰면서 수 차례 청산당하며 丙의 소중한 투자금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피해예방을 위해

① **(리딩방의 실제)** 유료 리딩방에 가입해 보면, 방장을 신처럼 떠받드는 신도들이 수백 명이나 즐비한 가운데 오고 가는 대화들을 보면서 **“방장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분이길래 분위기가 이럴까?”** 라는 궁금증과 더불어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방장을 신뢰하게 됩니다.

방장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가를 정해주며 매매를 지시하는데, 방장의 지시대로 매매한 결과 매수한 종목들에 온통 파란불이 들어오거나, 심지어 수십 퍼센트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종목도 생깁니다. 그럼에도 방장은 계속 기다리라고 하거나 물타기(추가 매수)를 통해 탈출하라는 등 어이없는 대책만 내놓곤 합니다. 결국 모두 손절하고 유료 리딩방을 탈퇴한 이후 방장이 추천한 종목을 종종 지켜보다가 손절하지 않았다면 이미 상장 폐지되어 휴지 조각이 될 운명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생깁니다.

리딩방을 운영한다는 자칭 고수들은 수십, 수백 퍼센트 수익률을 아주 우습게 말하고 홍보하는데, 리딩방 업체들에 비하면 투자의 대가로 유명한 **워렌버핏조차 연 평균 수익률이 고작 19.8%**에 불과합니다. 왜 그 자칭 고수들은 아직도 전 세계 부호 명단에 없는 걸까요? 어쩌면 매매로 승부가 안되니 사람들을 끌어모아 회비라도 받으며 연명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상자산 유튜브 채널과 리딩방을 운영하는 사람 중에는 경제나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관련 지식이 전무하고, 과거에는 배추 장사 등 가상자산이나 금융 투자와는 무관한 일을 하다가 유튜브로 전직한 뒤 투자 고수인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있는 자도 있다고 합니다. 투자나 경제 관련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심지어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고 수익률 인증 사진도 충분히 조작할 수

있는데, **그래도 소중한 내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심지어 일부 리딩방은 여러 개의 방을 각기 다른 이름으로 만들고 그 중 절반은 상승을, 절반은 하락을 예상한 뒤 방향을 맞추는 쪽만 남겨두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맞춘 곳만 남긴 뒤 투자자들을 유인할 때 과거에 잘 맞춘 기록을 보여주면서 신뢰를 심어주어 투자금을 이끌어내는 수법을 쓰는 것입니다. **정말 투자 고수라면 지금 리딩방에서 한가하게 채팅이나 하고 있을 시간이 있을까요?**

②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 출금 거부)** 앞서 기술한 ‘피해사례1’(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사기) 및 ‘피해사례3’(로맨스 스캠)에서의 경우와 동일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본 사례에서는 리딩방을 운영하는 사람도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와 한통속인 것으로 의심되는데, 종합하면 사기를 위해 결국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 등으로 신규 투자자를 유인해야 하고, 그 전략으로 유튜브, 채팅 어플, SNS 등을 통한 홍보, 리딩방 등이 다양하게 이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③ **(대리매매)** 본인이 투자할 돈 없으니 남의 돈으로 투자해서 **“운 좋게 벌면 반땅, 잃으면 알 바 아님”**이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매매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계정정보와 비밀번호까지 모두 알려주시겠습니까? 심지어 본 사례처럼 선물거래 레버리지를 알트코인 40배, 비트코인 150배 사용하면 아마도 주문을 넣음과 동시에 2번의 알람이 울릴 것입니다. “띠링~ 매수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띠링~ 청산되었습니다.” 독자들은 본 사례에서 **대리매매를 위탁한 선량한 피해자가 결국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며 인류애가 사라지거나 최소한 가상자산 투자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못 믿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만큼 사기를 당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니 “**지금처럼, 계속, 앞으로도, 쪽**” 투자사기가 아닌지 의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STORY 7

NFT 경매 사기



요약

NFT 경매를 통해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에 속아 투자하게 되었으나, 갑자기 경매 사이트로부터 투자금을 모두 편취당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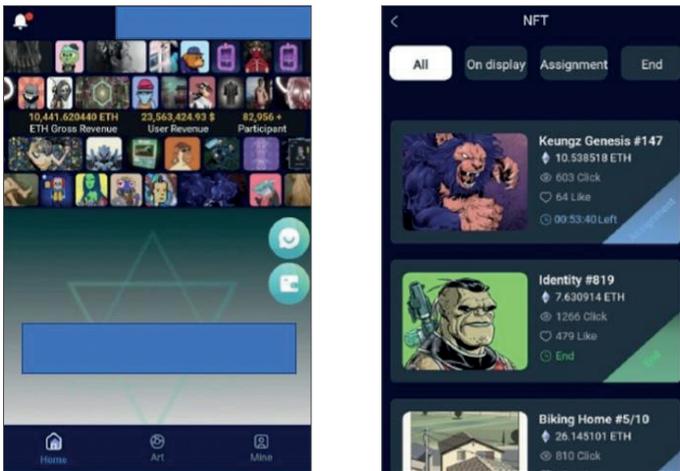
피해사례

甲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낯선 여성 A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甲과 A는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친분을 쌓아갔고, A는 甲에게 본인이 NFT 경매를 통해 얻은 수익 인증 사진, 명품 구매 내역 등을 전송하며 NFT 경매에 대해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매는 매일 오전, 오후 2번 참여할 수 있고 2~5% 상당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같이 투자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화유였습니다.

甲은 본인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A와 쌓은 친분을 믿고 우선 소액으로 투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투자는 甲이 일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매수하여 개인지갑(메타마스크)으로 전송 후 USDC⁽¹⁾로 Swap하고, NFT 경매 사이트에 회원가입 및 지갑 연결 후 USDC로 경매에 참여하는 방식이었고, 경매 사이트에서는 甲에게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며 프리미엄 멤버로 가입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甲이 프리미엄 멤버로 가입하고 NFT 경매에 투자해본 결과 실제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였고, A는 더 많은 수익을 위해 투자 원금을 늘리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동안 얻은 수익과 A의 권유에 넘어간 甲은 더 큰 수익을 원하는 마음에 아파트 담보 대출자금을 추가해 4억원 상당으로 투자금을 늘렸고 이후 기존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NFT 경매 사이트에서 “신용도가 높아 7일 단기 대출 \$300,000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안내를 보고 대출을 받았다며 甲에게도 팝업 확인 후 대출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습니다. 甲 또한 사이트에 접속해 안내 팝업을 보게 되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A에게 대출을 받았을 때 리스크는 없는지 재차 확인하였으나, A는 전혀 리스크가 없으며 본인도 이미 대출받아 앞으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며 甲을



▶ 본 사례 NFT 경매 사이트 화면(출처: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접수사례)

- 11) 가상자산 가격이 미국 달러 가치와 1:1로 대응되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으로서 편의상 달러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며, 앞서 머리말(8p)에서 언급된 'UST'와 '미신고(불법)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사기' 사례(30p)의 'USD' 모두 스테이블 코인에 해당합니다.

안심시키며 대출을 수락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甲의 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꾀이었으며 甲이 대출 수락(Accept) 버튼을 누르자 개인 지갑에 있던 4억원 상당의 USDC가 모두 사기꾼 일당의 지갑으로 출금되었습니다. 甲은 자금의 행방을 찾고자 트랜잭션 기록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甲의 USDC가 사기꾼의 개인지갑을 거쳐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예방을 위해

① **(하루 2~5% 상당의 수익률)** 하루에도 수십 또는 수백 퍼센트 움직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할 때 **얼핏 보면 매우 작아 보이는 수익률**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사기가 아니고 안전한 투자처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2%씩 1년 복리로 **계산하면** 137,641%(1,376배), 매일 5%씩 1년 복리로 계산하면 5,421,184,058%(54,211,840배)가 계산되는데, 이는 평범한 학생조차도 고작 **1만원으로 1,376만원 ~ 5,421억원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락업코인 판매 등 사기 사례에서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제시했던 400% 수익률 따위는 너무 소박하게 느껴지는 정도이며 연 평균 수익률 19.8%를 기록했다는 워렌버핏도 반성할 만한 수익률입니다.

누군가 만일 당신에게 1년만에 54,211,840배를 벌게 해주는 투자처가 있다고 하면 **민겠습니까?** 당연히 의심하고 사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루에 5%를 벌 수 있다고 하면 다소 의심은 될 수 있겠지만 말도 안되는 헛소리로 치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이러한 심리적 요인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큰 수익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주장하는 수익률의 복리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마치 합리적인 제안처럼 잘 포장된 사기꾼의 덫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②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출금)** 사기꾼은 피해자에게 NFT 경매 사이트에서 수수료 혜택 명분으로 프리미엄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대출 명목 수락(Accept) 버튼을 누르게 함으로써, 피해자 지갑에 접근할 권한을 획득하고 지갑에 있는 가상자산을 인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치 피싱 문자에 있는 주소 링크를 누르면 갑자기 휴대폰이 해킹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투자자가 믿고 거래하는 거래 사이트에서 이런 행위를 할 것이라 누가 예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라도 동일한 상황에서 이런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방지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최소한 **비정상적인 수익률을 홍보하며 투자를 유인하는 업체에 대한 의심과 경계심**을 갖고 투자 자체를 지양하는 것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그나마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사례에서도 ‘피해사례3’(로맨스 스캠)과 같이 낯선 사람이 SNS로 접근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는데, 금전이 개입된 거래에서는 가족도 친구도 쉽게 믿기 어려운 세상에서 누군가 나에게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든, 오프라인으로든 접근하여 투자를 권유한다면 한 번이라도 더 의심하고 최소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 등에** “현재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비슷한 상황에서 피싱이나 사기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는지” **문의**라도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맺음말

혹자는 차라리 사기 가상자산거래소, 행위자, 코인에 대해 모두 밝혀주면 우리는 그걸 피해서 투자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특정 업체나 가상자산만 한정하여 열거하는 방식으로 언급하는 경우, 그 외 나머지는 모두 건전하거나 안전한 투자처라는 의도하지 않은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정상적 가상자산거래소인 것처럼 교묘하게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매우 짧은 시간에 가능하고, 심지어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새로운 코인(토큰)을 누구나, 언제든지, 심지어는 PC방에서 컵라면을 먹으면서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복잡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기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책자에 기재된 대표적 피해사례와 예방책을 숙지한다면 새로운 유형의 사기가 발생하더라도 독자들은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본 책자에 기재된 사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투자사기를 당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¹²⁾ 또는 경찰¹³⁾에 신고하시고, 상담과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12)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 13) 경찰 민원포털(minwon.police.go.kr)

집필진

감수 가상자산조사국, 문정호 국장
가상자산조사국, 도영석 팀장
가상자산조사국, 강세라 수석조사역
가상자산조사국, 나건혁 조사역
DAXA, 우종수 자문위원
DAXA, 조재우 자문위원
DAXA, 황석진 자문위원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
DAXA, 김지연 운영본부장
DAXA, 정하니 과장

집필 가상자산조사국, 김용래 조사역

2024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집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

발행처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발행인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디자인·인쇄 한결엠

02)6952-0551 www.hgm6952.com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DAXA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비매품